

미륵리 封山石標에 관한 研究<sup>1</sup>  
- '閔慶邑 封山' 및 鳥嶺封山과 關聯하여 -  
裋 在 洙<sup>2</sup>

A Study on the Miruk-ri Bongsan Stone Landmark<sup>1</sup>  
- With a Relevance to the 'Moonkyung County Bongsan' and  
Choryung Bongsan -  
Jae Soo Bae<sup>2</sup>

요 약

본 연구는 1997년에 발견된 '미륵리 封山石標'와 '閔慶邑 封山' 및 鳥嶺封山の 關連성을 밝혀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조선 후기 地理誌, 邑誌, 地圖, 朝鮮王朝實錄 등을 이용한 문헌분석과 현장답사를 병행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미륵리 封山石標'는 鳥嶺封山の 境界標識石이며, (2)지정 목적은 한양의 門戶며 南漢江에 接속된 兪州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鳥嶺關防의 산림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3)미륵리에 封山石標를 세웠던 이유는 그곳이 오래 전부터 鳥嶺, 閔慶, 忠州를 이어주는 交通상의 要地에 위치하여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封山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iruk-ri Bongsan Stone Landmark' found in 1997 and 'Moonkyung County Bongsan' and Choryung Bongsan. Relevant literature was analyzed and the spots were investigated as well. Data used are geography book, maps, town chronicles and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Miruk-ri Bongsan Stone Landmark' is inferred as Stone Landmark of Choryung Bongsan. (2)Choryung Bongsan was designated to protect a strategic forest lands established around the Choryung Pass for the defence of Chungju which is the door of Capital city, Hanyang, and connected to South Han River. (3)'Miruk-ri Bongsan Stone Landmark' seems to be erected at Miruk-ri because it was a spot of traffic importance, which connects among Choryung, Moonkyung County and Chungju County in notifying the importance of Bongsan to travelers.

Key words : Moonkyeng County Bongsan, Choryeng Bongsan, Miruk-ri Bongsan Stone Landmark, Chosun Dynasty

序 論

1.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1997년 11월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미륵리사지터에서 윗부분이 부서진 채로 방

치되어 있던 封山石標<sup>1)</sup>(사진 1 참조)를 발견한 후 생겨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즉, (1)'미륵리 封山石標'는 어떤 封山의 境界標識石인가, (2)이 封山(石標)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정(설치)된 것일까, (3)잘려진 윗 부

<sup>1</sup> 接受 1999年 1月 18日 Received on January 18, 1999.

<sup>2</sup> 임업연구원 Forestry Research Institute, 207 Chongyangni 2-dong, Tongdaemun-Gu, Seoul 130-012, Korea.

분에 어떠한 기록이 남겨져 있을까, 구체적으로 黃腸封山, 栗木封山 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封山 제정 연도를 나타내는 기록이 있지는 않았을까 등 많은 의문이 생겼다.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1)과 (2)로, 과연 '미륵리 封山石標'는 어떤 봉산의 경계표지석이며 그 지정 목적은 무엇인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기존연구의 검토

조선시대 산림정책 중 封山制度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양적으로 풍성하였다. 李萬雨(1974)는 朝鮮時代의 林地制度를 주요 법정의 변화와 함께 고찰하면서, 封山制度가 17세기 말 숙종연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기능은 조선전기의 禁山制度와 같다고 보았다<sup>2)</sup>. 반면 최덕수 등(1997)은 封山制度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 즉 산림사유권의 성장에 따른 산림사점의 증가, 山下住民들의 禁山에서의 濫伐, 상품경제의 발전과 목재수요 확대, 大同法 실시 이후 貨幣納 실시 등과 같은 조세제도의 변화, 禁山制度 자체의 결함으로 禁山制度가 붕괴되고 封山制度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sup>3)</sup>. 裴在洙(1995)는 조선후기 封山制度의 연구를 일제의 식민지 이데올로기인 朝鮮林政全無論을 반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바라보고 封山의 位置 및 機能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封山은 물길에 큰 영향을 받아 서해안의 섬과 해안, 남한강, 북한강의 수로 연변에 주로 위치하며 그 기능도 조선전기 禁山에 비해 확장되었다고 보았다<sup>4)</sup>. 나아가 조선후기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산림제도인 封山制度가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에 의해 부정되고 파괴되어 현재 일반인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갔는가를 밝혔다<sup>5)</sup>. 한편 朴烽宇(1996)는 封山地域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의 黃腸禁標의 위치와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sup>6)</sup>.

기존의 연구 동향은 조선후기 封山制度의 성립 시기, 성립이유, 위치, 기능에 관한 전국적인 규모의 일반적인 고찰이 주를 이룬 반면 개별 封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通史 또는 全體史가 각 부문의 個別史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특수한



사진 1.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封山石標'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할 때 기존의 윤곽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개별 封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의 가설

조선후기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國用產物인 船材 및 黃腸木이 생산되는 封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封山制度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정부는 禁山名號에 대한 장부를 工曹에 비치하도록 하고 某某邑은 某面 某里의 某山을 禁山으로 정하

2) 이하 '미륵리 封山石標'로 기술.

2) 李萬雨, 1974, 李朝時代의 林地制度에 관한 研究, 한국임학회지 22 : 19~48.

3) 崔德壽·朴環碩·李旭, 1997, 朝鮮後期 封山制 成立에 대한 研究, 산림경제연구 5(1) : 49~63.

4) 拙稿, 1995, 朝鮮後期 封山의 位置 및 機能에 관한 研究 - 萬機要覽과 東輿圖를 中心으로 -, 산림경제연구 3(1) : 29~44.

5) 拙稿, 1996, 잊혀진 封山 : '역사속의 숲'을 넘어 현실의 장으로, 숲과문화연구회 199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숲과문화연구회, pp.207~219. 裴在洙·尹汝昌, 1995, 統監府時期(1906~1910)의 森林政策에 관한 考察 : 莞島封山의 拂下未遂事件을 中心으로, 한국임학회지 84(1) : 48~62.

6) 朴烽宇, 1996, 黃腸禁標에 대한 考察, 한국임학회지 85(3) : 426~438.

고 禁山의 범위를 몇 리로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다<sup>7)</sup>.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소실된 궁궐 및 관아를 재건하기 위해 목재수요가 증가하였다. 반면 권세가들에 의한 산림 사점의 증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대동법 실시 이후 목재의 代納 등에 따른 목재의 상품성 증가로 船材 및 黃腸木의 안정적인 공급은 갈수록 어려워져 갔다<sup>8)</sup>. 숙종 초기에는 封山制度를 통해 국용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어내고자 하였으며 정조대에는 禮曹에서 封山案을 바탕으로 國用産物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였다<sup>9)</sup>. 현재 이러한 사료가 原本으로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시대 임야소유권 확정 및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 封山으로 지정된 경계 및 관리자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가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삼척군 盧谷面 介山里 등의 산림에 대한 金東鎬 외 2인의 所有權名義訂正 신청에 대해 林野調査委員會는 대상지가 封山이었다는 기록 등을 제시하며 却下處分을 내리고 있다. 林野調査委員會가 제출한 자료 중 「三陟府 黃腸封山謄錄」을 보면, 소재지, 封山으로 지정된 洞名, 黃腸木을 封牌木·嘗美木·將來木으로 구별하여 그루수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관리자인 監官의 성명을 밝히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 정부는 장부를 작성하여 封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地理誌나 邑誌 등에 封山 관련 사항이 전국적으로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封山制度가 성립된 17세기 후반 이후 간행된 주요 地理誌(地圖) 및 邑誌에는 封山으로 지정된 山名 및 지도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萬機要覽(1808)에는 縣別 封山處數가 상세히 나와 있다<sup>11)</sup>. 그러나 시대를 달리하는 여러 史料에 충북 지역의 封山에 관한 기록과 封山石標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으며 더군다나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은 封山의 존재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封山을 위에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륵리 封山石標'가 발견된 미륵리와 인접한 지역의 封山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륵리 封山石標'가 발견된 충주시 상모면 미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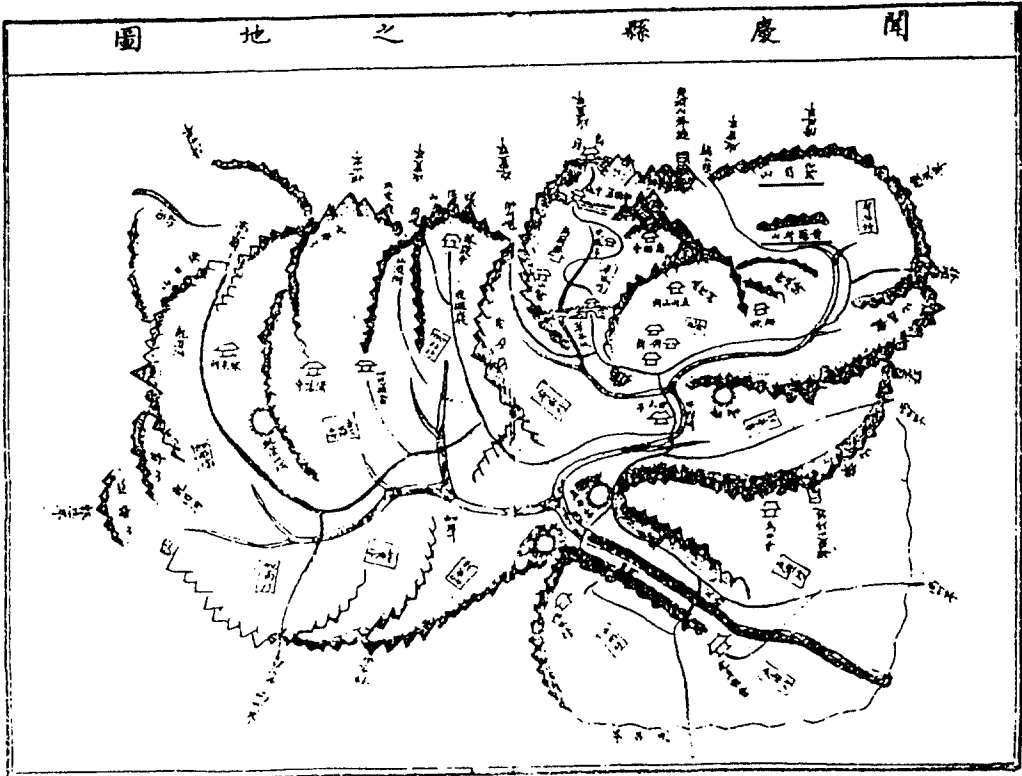
리와 인접한 지역은 현재 충북 괴산군, 충북 제천군, 충북 충주시, 경북 문경시이며 이중 조선 시대에 封山으로 지정된 지역은 현 문경시 문경읍의 황장산과 鳥嶺 주변의 關防林뿐이다. 양 封山은 모두 미륵리와 인접하며 미륵리가 문경과 조령(수안보)과 충주를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要路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미륵리 封山石標'는 '閔慶邑 封山'<sup>12)</sup> 또는 鳥嶺封山<sup>13)</sup>의 경계표 지식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 4. 연구방법

'미륵리 封山石標'가 인접한 '閔慶邑 封山' 및 鳥嶺封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문헌분석과 현지답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조선후기 地理書인 輿地圖書, 大東地志와 地圖인 輿地圖, 海東地圖, 廣輿圖, 조선후기 간행된 여러 邑誌 및 朝鮮王朝實錄 등을 이용하여 封山の 위치를 파악하고 大韓帝國時期的 南韓山林調査書(1905)와 朝鮮山林分布圖(1910)를 이용하여 '미륵리 封山石標'와 鳥嶺封山の 관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그 관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현지 답사를 수행하였다. 1차답사는 1997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당시는 封山石標의 존재 확인과 개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2차답사는 1998년 2월 24~25일에 이루어졌으며<sup>14)</sup>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封山石標의 원위치와 封山石標가 언제, 왜 부서지게 되었

- 8) 黃美淑, 1994, 朝鮮後期 木材需要의 增大와 國用 木材의 調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조선왕조실록 정조 11년 정월 무인조.
- 10) 盧谷面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朝鮮總督府, 1936,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事務報告, 사진첨부자료). 盧谷面 麻邑山 周回一百十里 黃腸封山 豈峰山 封山下所在洞名 上麻邑洞 中麻邑洞 下麻邑洞(이하 생략) 黃腸木區別 封牌木 六十五株 嘗美木 二千一百七十七株 將來木 九千八百七十五株 監官 安文鎬
- 11) 萬機要覽 財用編5, 松政.
- 12) 조선시대까지는 문경현에 1處의 封山이 지정되었으나 일제시대에 예천군 동로면에 지정된 封山이 문경군에 편입되면서 현재 문경에는 2處의 봉산이 있다. 두 곳을 구분하기 위해 이하 '문경읍 봉산', '동로면 봉산'이라 기술하고자 한다.
- 13) 閔慶關防의 禁伐林을 鳥嶺封山으로 칭함.
- 14) 현지답사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이해주연구사, 이유희연구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7) <各司謄錄> 工曹受教.



지도 1. 輿地圖書에 나타난 '聞慶邑 封山'

고 미륵리사지터로 옮겨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차답사는 1998년 8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聞慶文化院과 전문가(5)의 도움을 얻어 '聞慶邑 封山'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 本 論

#### 1. '聞慶邑 封山'

##### 1) '聞慶邑 封山'의 지정 연대

封山の 지정시기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반면 '聞慶邑 封山'은 숙종 6년(1680년)에 始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871년(고종 8년)에 작성된 嶺南邑誌「聞慶縣誌」를 보면 "黃腸封山 - 康熙 庚申 六年 始封"<sup>16)</sup>이라고 되어 있어 '聞慶邑 封山'이 封山制度가 시작되는 숙종 초기에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2) '聞慶邑 封山'의 위치

'聞慶邑 封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輿地圖書에서 보인다. 輿地圖書은 1757년(영조 33)~1765년(영조 41)에 各邑에서 편찬한 邑誌를 모아 成冊

한 전국 邑誌로 편성된 지 270여년이 지난 新增 東國輿地勝覽의 改修·續成에 편찬목적이 있었다<sup>17)</sup>. 55책에 295개 邑誌와 17개의 營誌 및 1개의 鎮誌 등 총 313개의 地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慶尙道 <聞慶縣>을 보면, 聞慶의 黃腸封山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지도에 나타내었다.

黃腸封山 在黛眉山下 周回十里<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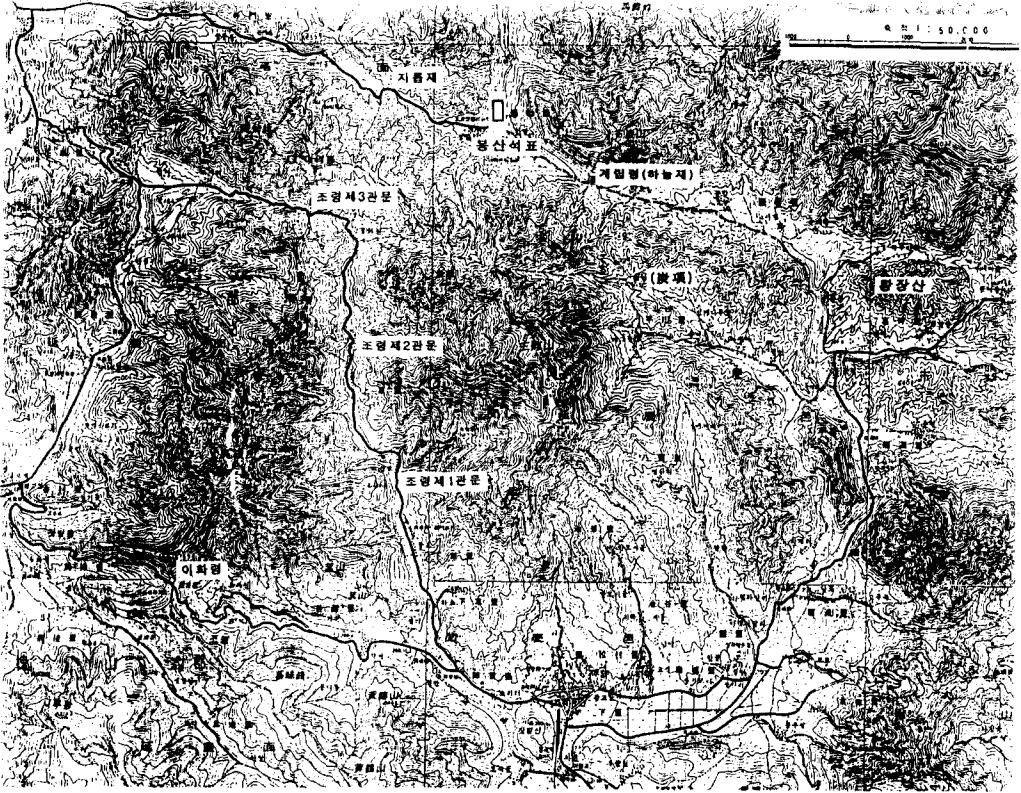
즉, 黛眉山(현재 명칭은 大美山) 下方 둘레 十里를 黃腸封山이라 지칭하고 있다.

輿地圖書와 거의 같은 연대에 간행된 廣輿圖(1767 - 1776)와 海東地圖에는 輿地圖書에 나와 있는 聞慶의 封山이 龜山에 위치한다는 데는 일치하나 그 경계는 상이함이 보인다. 먼저 광여도

16) 嶺南邑誌 聞慶縣誌(규장각 도서 12173).

17) 楊普景, <輿地圖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8) 輿地圖書 下卷, 慶尙道 聞慶縣, 국사편찬위원회, p.697.



지도 2. 대상지역의 지형도

를 보면, '聞慶邑 封山'이 龜山黃腸封山이며 周回四十里라 기록<sup>19)</sup>되어 있는 반면, 海東地圖에는 "聞慶 龜山黃腸封山"<sup>20)</sup>이라는 데는 일치하나 그 경계가 周回十里라고 되어 있다. 이후 기록<sup>21)</sup>에는 '聞慶邑 封山'에 대한 경계가 모두 周回十里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聞慶邑 封山'인 황장산의 경계가 사방 10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볼 때 廣輿圖의 내용이 誤記일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英祖代에는 聞慶의 封山이 黃腸封山이며 龜山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시의 龜山이 현재의 어디인가가 문제인데, 세 번째 현지답사의 결과 문경시 문경을 관음리, 갈평리와 중평리에 걸쳐 있는 황장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도 2 참조). 地名이 "황장목을 생산하는 산"이라는 것<sup>22)</sup>과 고종대에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황장산의 목재를 사용하였다는 傳言, 문경에서 漢陽으로 목재를 운

반하기 위한 최단거리인 鷄立嶺(하늘재)에 인접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龜山은 지금의 황장산임이 분명하다. 이때 黛眉山下는 대미산 정상 밑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백두대간인 黛眉山 줄기의 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도 1>의 黛眉山을 보더라도 산 정상이 표시된 것이 아니라 산줄기가 눈썹처럼 표시되었듯이 조선시대의 산에 대한 인식은 산 정상보다는 흐름, 즉 산줄기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 3) '聞慶邑 封山'의 기능

'聞慶邑 封山'은 國用產物인 黃腸木을 산출하는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海東地圖, 규장각 자료 총서.

21) 申厚湜, 1997, 集註聞慶史.

22) 한국지명총람에는 황정산에 대해 "황정산[황장산, 황장봉산]: 문경을 관음리, 갈평리와 중평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518m. 황장목(黃腸木)을 육성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한 산"(한글학회, 1978, 한국지명총람5(경북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황장산이 곧 黃腸木을 산출하기 위한 산이라고 적고 있다.

19) 龜山黃腸封山 周回四十里 距官門二十六里(廣輿圖(上), 慶尙道 聞慶顯, pp.507~508).

경제적 기능과 黃腸木의 운반수단인 남한강 지류인 東達川과 鷄立嶺(하늘재)이라는 수로와 육로를 고려하여 설정된 黃腸封山이었다.

문경이라는 내륙에서 黃腸木을 벌채하여 漢陽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축력만으로는 불가능하였다. 대부분의 封山이 海運船이나 漕運船을 이용할 수 있는 해안가나 강가에 지정되어 水運을 이용할 수 있었듯이 '閔慶邑 封山'인 황장산의 목재는 남한강의 지류인 東達川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남한강 유역의 목재는 삼국시대 백제인들이 하류로 이용하여 일부는 낙랑으로 수출하였을 정도로 일찍부터 이용되었다<sup>23)</sup>. 조선시대 태종대에는 창덕궁을 수리하기 위해 梓人 오덕해를 강원도에 보내어 船軍 6백 명을 거느리고 원주·영월·인제 등지에서 벌채하였다<sup>24)</sup>. 또한 일제시대에도 주요 임목지는 소백산·새재·계방산 일대를 꼽았으며<sup>25)</sup> 그중 정선·평창·횡성·영월·삼척·원주 등 강원 6곳의 소나무와 단양 및 새재 일대의 소나무와 박달나무(檀木)는 중요한 임산물이었다<sup>26)</sup>. 이중 충주 분지의 남한강 최남단 지류인 達川은 남한강의 지류 가운데 增水期가 아닌 경우에도 선박운항 또는 流筏이 가능했던 곳이었다<sup>27)</sup>.

또한 '閔慶邑 封山'에서 벌채한 黃腸木을 東達川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鷄立嶺(하늘재)을 거쳐 東達川까지 육로로 운반하는 것이 최단거리였다. 즉, 문경현의 黃腸木을 벌채하여 육로로 계립령(하늘재)을 거쳐 남한강의 지류인 東達川(松溪溪谷)까지 운반한 후 增水期를 이용하여 뗏목으로 한양까지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 '閔慶邑 封山'과 '미륵리 封山石標'의 관련성

'閔慶邑 封山'인 황장산의 경계는 사방 10리에 불과하기에 경계표지석인 封山石標가 미륵리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단 '미륵리 封山石標'가 발견된 미륵리가 '閔慶邑 封山'에서 생산된 黃腸木의 운반로인 계립령과 水運의 출발지인 東達川의 인접지라는 면에서 목재운반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은 컸다고 여겨진다.

## 2. 鳥嶺封山

### 1) 鳥嶺封山の 지정연대

鳥嶺封山の 지정 연대는 '閔慶邑 封山'에 비해 확실치 않다. 조령이 임란 이후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關防의 역할을 담당하였고<sup>28)</sup> 숙종대에는 鳥嶺山城과 關門이 건립되는 등 關防으로서의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鳥嶺封山の 지정시기는 숙종대가 아닐까 여겨진다<sup>29)</sup>. 또한 鳥嶺封山이 船材나 黃腸木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封山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를 방비한다는 關防用 禁伐林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기에 '封山'이라는 용어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조선 후기 地理誌나 邑誌에 鳥嶺封山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封山의 縣別 분포가 기록되어 있는 萬機要覽에조차 언급이 없던 것으로 보아 關防用 禁伐林은 일반 封山과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關防用 禁伐林을 일반 封山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였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일정 경계를 정하여 山下住民들의 이용을 금지하였다는 측면에서는 封山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關防에 封山標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서 경작이나 화전을 엄격히 금지하였던 것이다<sup>30)</sup>.

한편 鳥嶺에도 封山石標가 있었다는 증거는 1905년 道家充之와 長倉純一郎이 우리 나라의 남한지역 산림을 조사하고 발간한 보고서 중에 "鳥嶺은 古來 國防上의 禁伐林으로서 山麓에는 石標가 있는데, 封山의 二字를 새긴 것"<sup>31)</sup>이라는 기록 속에 조령 근처의 山麓이 封山으로 지정되었으며 『封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石標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關防用 禁伐林 역시 封山의 범주에 속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封山石標가 '미륵리 封山石標'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진전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鳥嶺封山の 위치

현재 문경새재도립공원은 행정구역으로는 문경

24) 조선왕조실록 태종 18년 6월 14일조

25) 吉田英三郎, 1911, 朝鮮誌, 町田文林堂, pp.116~117.

26) 최영준, 1997, 전게서, p.161.

27) 최영준, 1997, 전게서, pp.115~117.

28) 문경시, 1998,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문경, pp.189~210.

29) 萬機要覽, 軍政編4, 關防 慶尙道 閔慶.

30) 조선왕조실록 정조 2년 1월 10일조.

31) 道家充之, 長倉純一郎, 1905, 南韓山林視察復命書, p.15.

23) 이병도, 1977,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p.318.



지도 3. 조선산림분포도에 나타난 조령 주변의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 경계<sup>36)</sup>

시 문경을 하초리와 상초리를 포함하고 지형상으로는 조령산과 주흘산 일부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제1, 제2, 제3조령관문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경계내의 산림은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조령봉산의 경계에 포함되었으며 그 경계는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었다.

聞慶關防의 경계는 문경을 남쪽 약 9km 지점에 있는 姑母山城과 姑夫山城, 串甲川棧道, 鳥嶺, 梨花峴, 姑母嶺 및 鳥嶺 동쪽의 鷄立嶺까지를 포함한 넓은 면적이었다<sup>32)</sup>. 關防 지역이 계림령의 경계까지 미쳤다면 당연히 烽火가 설치되었던 문경을 관음리의 炭項이나 충주와 조령을 이어주는 要路인 미륵리 주변 산림에까지도 그 경계가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鳥嶺封山の 경계가 聞慶關防의 경계와 일치한다고 본다면, 19세기 초 조령봉산의 경계는 현 경북 문경시 문경읍 남쪽의 고모산성에서부터 문경을 북쪽의 관음리(炭項)까지를 포함하고 하늘재를 경계로 도계계를 달린 충북 충주시 상모면의 미륵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조령봉산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大韓帝國時代に 만들어졌다. 日帝는 大韓帝國時期 한국 산림에 대한 소유별, 도별, 임상별 조사를 수행하여 이후 식민지 임정을 수립하고자 林籍調査事業(1910)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간략하나마 大韓帝國의 소유별, 임상별, 도별 산림분포를 알 수 있는 1/50만 朝鮮山林分

布圖를 조제하였다<sup>33)</sup>. 이 조사는 日帝가 大韓帝國을 강점하기 이전까지의 산림소유관계와 산림분포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특히 본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의 경우 “封山, 牧場 등 종전 官有林野의 구역”이라 정의<sup>34)</sup>하고 지도상에 표시하였다. 이 지도를 보면 封山の 경계가 鳥嶺,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안말, 계림령, 주흘산, 이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지도 3 참조). 조선후기의 조령봉산 경계에서 문경을 남부의 고모산성이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거의 경계가 일치하고 있다. 물론 이 경계를 모두 하나의 封山이라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대부분의 牧場이 草地로 조성되어 있고<sup>35)</sup> 官用柴場은 지정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대면적의 成林地로 조성된 이 지역산림은 鳥嶺封山일 가능성이 크다.

### 3) 鳥嶺封山の 機能 考察

鳥嶺封山은 군사적 요충지인 鳥嶺을 방어한다는 군사적 기능을 고려한 關防封山이다. 關防이란 험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방어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서 교통의 요충지나 嶺隘의 요해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배치하여 외침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sup>37)</sup>.

33) 齊藤音作, 1933, <韓國政府時代の林籍調査事業>, 《朝鮮林業逸誌》, 朝鮮山林會, p.55.

34) 齊藤音作, 1933, 전계서, p.42.

35) 輿地圖書, 大東地誌 등의 聞慶縣에는 牧場이 없음.

36) 원본은 칼라로 되어 있다.

37) 萬機要覽, 軍政編4, 關防.

32) 萬機要覽, 軍政編4, 關防 慶尙道 聞慶.

조선시대 關防林의 설정 이유는 대체로 고갯길 좁은 길목을 방어하는 방법은 나무를 많이 기르는 일보다 상책은 없다<sup>38)</sup>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문경새재와 같은 천혜의 관방지역은 고갯길 양측의 산림을 무성히 하여 아군의 매복과 함께 적군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임란 이후 鳥嶺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성룡은 “오늘날 형세는 鳥嶺을 굳게 지키는 계획이 가장 긴급합니다. 忠州는 京都의 상류에 있는 지역으로 나라의 門戶가 되니 충주를 지키지 못하면 한강을 연한 수백 리가 모두의 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충주를 보전하려면 조령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령의 험준함을 막지 못하면 충주 또한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지난날 申砮의 패전으로 이미 분명히 徵驗되었습니다”<sup>39)</sup>라고 말할 정도로 鳥嶺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왜란 후 嶺路關防의 전략이 확립됨에 따라 주요 嶺路에 城과 關을 설치하여 적을 막게 하고 가장 중요한 교통로만을 남겨두고 그 밖의 소로를 모두 폐쇄하게 되었다. 왜란전까지 충주와 문경 사이에는 鳥嶺直路 외에 鷄立嶺·梨花嶺 등 소로와 지방민들이 사용한 細路들이 많아 통행인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며<sup>40)</sup> 도처에 火田이 늘어 嶺이 노출되었으므로 조림을 강화시켰다<sup>41)</sup>.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關防林으로 알려진 鳥嶺 부근의 산림은 일찍부터 關防을 위해 벌채를 금하였다. 숙종 45년(1718)에는 “關防의 땅에 樹木이 무성하여 울창하면 城池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鳥嶺의 수목을 培養해 온지 해가 오래 되어 자못 무성해졌는데, 근래에 몰래 斫伐한 것이 이루 셀 수가 없으며, 棺材로 बे기까지 한 까닭에 장차 민동산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sup>42)</sup>라는 공조판서 閔鎮厚의 말로 볼 때, 鳥嶺은 關防의 要地로서 오래 전부터 벌채를 금하고 산림을 培養해 왔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또한 “鳥嶺·竹嶺·秋風嶺·八營峙는 湖西·湖南에서 嶺南으로 통하는 大路이므로, 그 要害地에 따라 특별히 城砦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고개 아래의 내외 각 고을로 하여금 信地를 나누어 정하여야 합니다. 조령의 경우는 안으로는 延豐 등 몇 고을과 밖으로는 聞慶 등 몇 고을

에 조령의 防守를 맡기자”<sup>43)</sup>는 知中樞 李寅燁의 상소는 鳥嶺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려준다. 그리고 鳥嶺의 안쪽인 延豐 등 몇 고을에 防守를 맡긴다는 것은 聞慶縣 뿐만 아니라 延豐縣<sup>44)</sup>의 인접 고을까지 防守를 같이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즉, 鳥嶺과 인접한 연풍현의 몇몇 고을 중 현재의 상모면 미륵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흘관 내의 獨嶺에는 산성별장 휘하의 약 100여명의 병력이 주둔하였으며 숲을 설치하여 문경, 상주, 용궁, 함창 등지의 곡식을 비축하였다가 유사시에 대비하였다<sup>45)</sup>. 조령산성내의 禁火 및 禁伐 등의 일은 山城의 최고 책임자인 別將이 전담하여 거행하였으며 성내의 백성과 승려들을 두려하여 책임지게 하였다<sup>46)</sup>. 문경새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계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산불도심포석」<sup>47)</sup>은 당시 鳥嶺封山의 산불관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鳥嶺의 獨嶺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지역의 경계를 증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sup>48)</sup>.

#### 4) 鳥嶺封山과 ‘미륵리 封山石標’의 관련성

18세기 초 聞慶關防의 경계는 문경을 남쪽 약 9km 지점에 있는 姑母山城과 姑夫山城, 串甲川棧道, 鳥嶺, 梨花峴, 姑母嶺 및 鳥嶺 동쪽의 鷄立嶺까지를 포함한 넓은 면적이었으며 1910년대 鳥嶺封山의 경계로 추정되는 朝鮮山林分布圖의 경계에 미륵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미륵리 封山石標’는 鳥嶺封山의 경계표지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계림령은 신라시대부터 문경과 충주를 이어주는 要路이며<sup>49)</sup> 인접한 炭項(현재 월항)은

39) 조선왕조실록 선조27년 2월 19일조.

40) 최영준, 1990, 전계서, p.401.

41) 萬機要覽, 軍政編 附 關防總論 備邊所啓 火田之禁條.

42) 조선왕조실록 숙종 45년 6월 5일조.

43) 조선왕조실록 숙종 33년 12월 27일조.

44) 현재의 충주시 상모면은 조선후기 연풍현 관할이었음.

45) 민족문화추진회, 新增東國輿地勝覽 제4권, p.165.

46) 성내의 백성들과 승려들은 유사시에 山城作隊軍에 편입되는 조건으로 煙戶雜役과 僧役이 면제되었다(慶尙北道 聞慶縣 鳥嶺山城 節目冊).

47)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226호로 조령 제2관문 길가에 놓여 있다.

48) 조선왕조실록 정조원년 9월 28일조.

49)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9권 慶尙北道 聞慶縣 山川條.

38) 조선왕조실록 정조9년 7월 26일조.



봉화를 올리는 군사적 시설이 있던 곳으로 關防의 경계가 되었던 곳이다.

### 3. '미륵리 封山石標'에 관하여

2차답사와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封山石標의 원위치와 封山石標가 언제, 왜 부서지게 되었고 미륵리사지터로 옮겨진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증언은 현지에서 오랜동안 거주하시고 封山石標를 미륵리사지터로 직접 옮긴 金周鑛翁<sup>50)</sup>이 직접 해주셨다. 다음의 서술은 김주진 옹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封山石標의 원래 위치는 미륵리 버스정거장 앞 논둑길 댕돌 위에 세워진 것으로 형태는 자연석 댕돌위에 封山石標를 올려놓은 형태였다. 미륵리 버스정거장은 서쪽으로 지류재와 연결되고 동쪽으로 충주시내로 연결되는 교통상의 要地로 조선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要路를 선택하여 이 곳이 封山의 境界라는 표식을 할 필요가 있었기에 封山石標를 미륵리에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封山石標 주위의 산은 오래전부터 “李皇帝山”이라고 불리어져 封山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김주진옹이 살았던 일제시대에는 겨울철에 주위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마철을 이용하여 東達川 송계계곡으로 流下시켜 남한강을 따라 한강 목재시장까지 진출했다고 한다. 물이 불어 流下하기 편리한 때는 일주일만에 한강에 도착할 정도로 水運이 발달하였다.

封山石標는 6·25동란 때 포격으로 인해 윗부분이 잘려져 나갔으며, 잘린 부분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고 한다. 즉, 문경시 동로면의 황장산 封山石標와 같이 『封山』이라는 두자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動亂 이후 封山石標는 계속 원위치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미륵리사지터가 발굴되고 더 이상 封山石標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김주진옹이 1990년대 초에 현재의 미륵리사지터로 직접 옮겨놓고 관리하였다고 한다.<sup>51)</sup>

현지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封山石標의 원위치는 김주진옹이 제시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封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김주진옹만이 “왕이 관리하는 입산금지

림”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다른 현지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 문경시 동로면에 위치한 황장산은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서 제시한 문경의 黃腸封山이 아니다<sup>52)</sup>. 왜냐하면 조선시대 동로면과 관내의 鵠城山(현재의 황장산)은 경북 禮泉縣에 속하다가 1914년 군면통폐합에 따라 문경군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황장산은 오히려 輿地圖書<sup>53)</sup>와 萬機要覽에서 제시한 禮泉縣의 黃腸封山이라 볼 수 있다.

### 結 論

지금까지 문헌과 현지답사를 통해 1997년 11월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미륵리사지터에서 발견된 ‘미륵리 封山石標’와 ‘聞慶邑 封山’ 및 鳥嶺封山의 관련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聞慶邑 封山’은 숙종 6년(1680)에 黃腸封山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封山制度의 실시 시기가 숙종 초기였다는 기존의 학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반면 鳥嶺封山의 설정시기는 확실하지 않은데, 鳥嶺山城이 완성되고 관리가 체계화된 18세기 초반 숙종연대로 추정된다.

‘聞慶邑 封山’은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관음리, 중평리에 연결해 있는 황장산(518m)이며 그 경계는 사방 십리의 작은 封山이었다. 반면 鳥嶺封山은 문경읍 남부의 姑母山城에서부터 북쪽으로 문경읍 관음리까지 미치며 계림령을 경계로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를 포함하는 큰 封山이었다.

‘聞慶邑 封山’의 설정 목적은 國用產物인 黃腸木의 생산이었던 것에 비해 鳥嶺封山의 경우는 군사적 요충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關防封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론에 제시했던 세 가지 연구 목적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미륵리 封山石標’는 鳥嶺封山の 境界標識石

51) 현재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52)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88-1에 위치한 「封山石標」는 황장산이 조선후기의 封山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 1990년 8월 7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227호로 지정되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53) 鵠城山 在郡北七十五里 小白正幹北來南峙爲槐山西北至忠清忠州界 封黃腸 周圍十里中有古城有石門基址(輿地圖書, 전제서, p.393).

50) 제보 : 1998.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49 金周鑛(1928년생)

으로 볼 수 있으며, (2)지정 목적은 한양의 門戶며 南漢江에 접속된 충주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鳥嶺關防의 산림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특히 미륵리에 封山石標를 세웠던 이유는 미륵리가 오래 전부터 鳥嶺, 聞慶, 忠州를 이어주는 교통상의 要地에 위치하여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封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3)부서진 封山石標는 단지 「封山」이라는 두 글자만 새겨져 있었으며 6·25동란 때 부서진 석표를 김주진옹이 '90년대 초에 미륵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현재의 미륵리사지터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 인용 문헌

1. 慶尙北道 聞慶縣 鳥嶺山城 節目成冊.
2. 廣輿圖(上), 慶尙道 聞慶顯.
3. 국사편찬위원회, 1973, 輿地圖書(上, 下).
4. 吉田英三郎, 1911, 朝鮮誌, 町田文林堂.
5. 김규성, 1971, 국역 만기요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6. 道家充之·長倉純一郎, 1905, 南韓山林視察復命書.
7. 聞慶文化院, 1998, 聞慶의 文化財大觀, 郷土史料 第十二輯, 第一原色.
8. 문경시, 1998,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문경, 문경새재박물관 조서연구총서2.
9. 민족문화추진회, (국역)新增東國輿地勝覽.
10. 朴烽宇, 1996, 黃腸禁標에 대한 考察, 한국임학회지 85(3) : 426~438.
11. 裴在洙·尹汝昌, 1995, 統監府時期(1906~1910)의 森林政策에 관한 考察 : 莞島封山の 拂下未遂事件을 中心으로, 한국임학회지 84(1) : 48~62.
12. 裴在洙, 1995, 朝鮮後期 封山の 位置 및 機能에 관한 研究 - 萬機要覽과 東輿圖를 中心으로 -, 산림경제연구 3(1) : 29~44.
13. \_\_\_\_\_, 1996, 잊혀진 封山 : '역사속의 숲'을 넘어 현실의 장으로, 숲과문화연구회 199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숲과문화연구회, pp.207~219.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海東地圖(上), 규장각 자료총서.
15. 申厚湜, 1997, 集註聞慶史.
16. 嶺南邑誌 聞慶縣誌(규장각 도서 12173).
17. 李萬雨, 1974, 李朝時代의 林地制度에 관한 研究, 한국임학회지 22 : 19~48.
18. 이병도, 1977,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19. 任炳燮, 1982, 聞慶郡誌(增補版).
20. 齊藤音作, 1933, <韓國政府時代의 林籍調査事業>, 《朝鮮林業逸誌》, 朝鮮山林會.
21. 朝鮮王朝實錄 CD-ROM, 1996, 서울시스템.
22. 朝鮮總督府, 1936,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事務報告.
23. 崔德壽·朴環碩·李旭, 1997, 朝鮮後期 封山制 成立에 대한 研究, 산림경제연구 5(1) : 49~63.
24. 최영준, 1997, <남한강의 수로와 수운>, 《국토와 민족생활사》.
25. 최영준, 1990, 嶺南大路 : 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研究.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7. 한글학회, 1978, 한국지명총람5(경북Ⅱ).
28. 黃美淑, 1994, 朝鮮後期 木材需要의 增大와 國用木材의 調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